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 수거·회수 실태 조사

2010. 12



목 차

요약문

| | |
|--|----|
| 제1장. 서 론 | 1 |
| I. 조사대상 | 2 |
| II. 조사방법 | 3 |
| 제3장. 조사결과 | 4 |
| I.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실태 | 4 |
| II. 1회용컵 사용 현황 | 7 |
| 1.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실태 | 7 |
| 2. 매장 내 1회용컵 회수 실태 | 18 |
| III.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준수여부 | 25 |
| 1.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 25 |
| 2.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 28 |
| 3. 타사제품의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 여부 | 31 |
| 제4장. 결 론 | 34 |

요약문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1회용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패스트푸드 5개 업체 11개 매장(롯데리아 2개 매장, 버거킹 2개 매장, KFC 2개 매장, 맥도날드 3개 매장, 파파이스 2개 매장)과 테이크아웃 8개 업체 15개 매장(스타벅스 2개 매장, 할리스커피 2개 매장, 엔제리너스커피 2개 매장, 던킨도너츠 1개 매장, 배스킨라빈스 3개 매장, 투썸플레이스 2개 매장, 파스쿠찌 1개 매장, 크리스피크림도넛 2개 매장), 테이크아웃점 중 1회용품 자발적 협약 미체결업체 중 나뚜루 2개 매장, 총 14개 업체 28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컵 수거 및 회수 실태를 조사하였다.

총 14개 업체 28개 매장 중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15개(53.6%) 매장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13개(46.4%) 매장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의 경우 3개 매장(10.7%)에서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어 테이크아웃 업종 12개 매장(42.9%)보다 적은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이번 조사 대상 매장이 모두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면적인 266㎡(80평)이하의 매장이기는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이 테이크아웃점보다 매장 내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볼 때 패스트푸드점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는 커피류의 따뜻한 음료와 탄산음료, 주스, 스무디류의 찬 음료 판매 시 1회용컵만 제공, 다회용컵 제공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 제공시 모두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이 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42.9%로 1회용컵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 부산태화점, 테이크아웃 업체인 엔제리너스커피 롯데부산식당가점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회용컵 사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매장 내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 판매 시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63.6%로 1회용컵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매장 내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판매할 때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이 64.7%로 높게 나타났으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29.4%로 패스트푸드 매장의 1회용컵 사용률(63.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전 매장 내 사용 1회용컵 사용무게 대비 업체 일주일(추정) 수거량 비율을 보면 50.1%로 전반적으로 1회용컵 수거량이 많지 않았으며, 테이크아웃 전 매장 내 사용 1회용컵 사용무게 대비 업체 일주일(추정) 수거량 비율은 38.1%로 1회용컵 수거량이 낮았다.

조사대상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의 사용무게와 수거 업체에서 일주일 동안 수거량을 추정한 비율과 비교하여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의 양을 비교한 결과 약 50.1%로 전반적으로 1회용컵 수거량이 많지 않았으며, 테이크아웃 점의 경우에도 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 사용무게 대비 업체 일주일(추정) 수거량 비율은 38.1%로 1회용컵 수거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다른 쓰레기 같이 버려지는 1회용컵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수 조치가 없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09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실시한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 버려지는 종량제 봉투 성상 조사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1회용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1회용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가장 큰 취지는 1회용품의 사용량이 많은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하기 등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신 1회용컵을 사용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소비자들에게 다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 및 매장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제공여부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또한 1회용품 자발적 협약내용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협약 내용 중 하나인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포인

트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총 28개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9개 매장으로 3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형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개 매장(14.3%)에 해당하며 테이크아웃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5개 매장(17.9%)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밖으로 들고 나가는 자사 상품의 1회용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나 총 28개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1개 매장(3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형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개 매장(3.6%) 밖에 없으며 테이크아웃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0개 매장(35.7%)으로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업체마다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다르고, 동일한 업체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이 구분되고, 인센티브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매장은 총 28개 매장 중 12개 매장 42.9%로 조사되었으며, 업체 형태별로는 테이크아웃 매장이 9곳(32.1%)으로 패스트푸드 매장 3곳(10.7%)에 비해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타사제품 1회용컵 또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업체별로 관리하여 협약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1장 · 서론

2008년도에 1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 이후 증가하는 1회용컵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패스트푸드 4개 업체(5개 브랜드), 테이크아웃 11개 업체(12개 브랜드)가 새롭게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10년 후반기에 들어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1회용 쇼핑봉투 사용하지 않는 점포 확대 등 다양하게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대표적인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체인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의 1회용품 사용량 증가와 재활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제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컵의 회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실제로 수거하고 있는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각 업체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한 각 업체들의 준수 여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9년도에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서울지역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에서 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9년 조사 시점은 협약을 체결한 지 약 3개월 만에 실시된 조사로써 많은 업체들이 협약에 대한 준비 기간임을 감안한다면 1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업체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본 조사에서는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부산지역의 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준수 여부와 매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컵의 회수량을 추정하여 업체에서 실제로 수거한 1회용컵의 양과 비교하여 현재 각 업체에서 1회용컵을 잘 회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였다.

제2장 · 조사내용 및 방법

I.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 중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는 1회용품 자발적 협약체결업체 14개 업체 중 부산지역에 매장이 없는 3개 업체(카페네스카페, 자바씨티, 렌떼)와 조사협조가 어려웠던 커피빈을 제외하고 매장 1~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1곳(나뚜루)을 선정하여 2곳의 매장을 조사하였다.

<표 2-1> 유통업체 내 푸드코트 입점현황

| 협약체결 | 형태구분 | 업체명 | 매장명 |
|------|-------|----------------|-----------------------|
| 체결 | 패스트푸드 | 롯데리아(롯데리아) | 롯데부산시네마점, 구서점 |
| | | 버거킹(SRS Korea) | 부산태화점, 부산현대점 |
| | | KFC(SRS Korea) | 부산대점, 부산지오점 |
| | | 맥도날드(한국맥도날드) | 동보점, 월드컵점, 서면동점 |
| | | 파파이스(TS 해마로) | 롯데마트금정점, 금정이마트점 |
| | 테이크아웃 | 스타벅스(스타벅스코리아) | 부산대점, 범일동역점 |
| | | 할리스커피(할리스에프앤비) | 부산대점, 부산서면점 |
| | | 엔제리너스커피(롯데리아) | 롯데부산식당가점, 롯데시네마부산점 |
| | |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 효원굿플러스점 |
| | | 베스킨라빈스(비알코리아) | 부산대점, 부산롯데2호점, 금정이마트점 |
| | |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 | 부산서면점, 부산대점 |
| | | 파스쿠찌(파리크라상) | 부산서면점 |
| | | 크리스피크림도넛(롯데쇼핑) | 서면점, 서면롯데시네마점 |
| 미체결 | 테이크아웃 | 나뚜루(롯데제과) | 롯데식당가점, 부산롯데점 |
| 합계 | | 14개 업체 | 28개 매장 |

II. 조사방법

조사는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약 30분 동안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1회용 컵의 개수에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컵의 개수를 제외하고, 매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1회용컵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값을 종이컵 평균 무게인 5g으로 환산한 후 해당 지역에서 1회용컵을 수거하는 업체의 회수량을 파악하여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종이컵의 양을 일주일 단위로 추정·비교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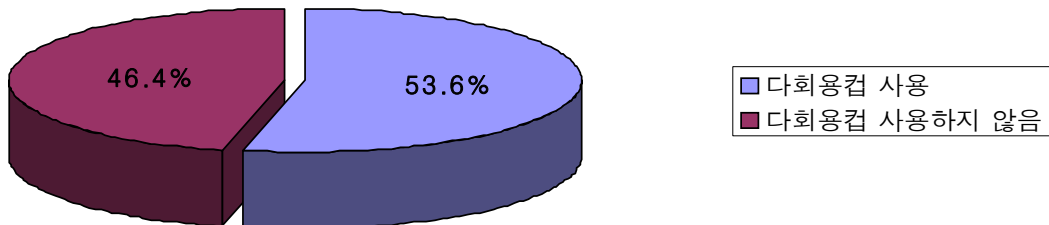
제3장 · 조사결과

I.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실태

조사대상 총 14개 업체 28개 매장 중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15개 (53.6%)매장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13개(46.4%) 매장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다회용컵 사용 | 15 | 53.6% |
| 다회용컵 사용하지 않음 | 13 | 46.4% |
| 합 계 | 2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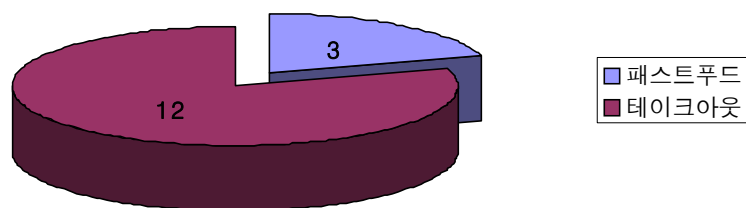


<그림 III->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업종별로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 업종 매장에서는 3곳(10.7%)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어 테이크아웃 업종(42.9%)보다 현저히 적은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은 패스트푸드 업종(25.0%)과 테이크아웃 업종(21.4%) 모두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III -> 업종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패스트푸드(%) | 테이크아웃(%) | 합계(%) |
|--------------|-----------|-----------|-----------|
| 다회용컵 사용 | 3(10.7%) | 12(42.9%) | 15(53.6%) |
| 다회용컵 사용하지 않음 | 7(25.0%) | 6(21.4%) | 13(46.4%) |
| 합 계 | 10(35.7%) | 18(64.3%) | 28(100%) |



<그림 III -> 업종별 다회용컵 사용 매장 수

조사대상 패스트푸드 5개 업체 중 롯데리아와 KFC는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버거킹은 2개 매장 중 1개 매장(부산태화점), 맥도날드는 3개 매장 중 2개 매장(동보점, 서면동점), 파파이스는 2개 매장 중 1개 매장(금정이마트점)에서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9개 업체 중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는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업체는 다회용컵을 조사대상 전 매장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리스피 크림도넛은 2개 매장 중 1개 매장(서면롯데시네마점)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가 아닌 나뚜루는 2개 매장 중 1개 매장(부산롯데점)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내용에는 계약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266㎡(80평)이상의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266㎡(80평)이상의 매장이 조사되지 않아 자발적 협약 체결 내용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으나 조사대상 11개 매장 중 4개 매장(36%)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자발적 협약 체결 내용에 있어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조사대상 자발적 협약 미체결 업체인 나뚜루를 포함한 17개 매장 중 11개 매장(65%)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수치로 나타난 결과로만 미루어 본다면 패스트푸드보다는 테이크아웃점에서 다회용기의 사용 비율이 높아 자발적 협약 내용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패스트푸드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 ->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 형태 | 업체명 | 지점명 | 매장면적 (㎡) | 다회용컵 사용 | 사용하지 않음 |
|--------|----------|----------|----------|-----------|-----------|
| 패스트푸드 | 롯데리아 | 롯데부산시네마점 | 79 | - | ○ |
| | | 구서점 | 200 | - | ○ |
| | 버거킹 | 부산현대점 | 7 | ○ | - |
| | | 부산태화점 | 198 | - | ○ |
| | KFC | 부산지오점 | 142 | - | ○ |
| | | 부산대점 | 205 | - | ○ |
| | 맥도날드 | 월드컵점 | 15 | - | ○ |
| | | 동보점 | 30 | ○ | - |
| | | 서면동점 | 263 | ○ | - |
| | 파파이스 | 롯데마트금정점 | 23 | - | ○ |
| 금정이마트점 | | 7 | ○ | - | |
| 테이크아웃 | 스타벅스 | 범일동역점 | 7 | ○ | - |
| | | 부산대점 | 330 | ○ | - |
| | 할리스커피 | 부산서면점 | 18 | ○ | - |
| | | 부산대점 | 79 | ○ | - |
| | 엔제리너스커피 | 롯데부산식당가점 | 90 | ○ | - |
| | | 롯데부산시네마점 | 132 | ○ | - |
| | 던킨도너츠 | 효원굿플러스점 | 144 | - | ○ |
| | 베스킨라빈스 | 금정이마트점 | 45 | - | ○ |
| | | 부산롯데2호점 | 49 | - | ○ |
| | | 부산대점 | 82 | - | ○ |
| | 투썸플레이스 | 부산서면점 | 198 | ○ | - |
| | | 부산대점 | 231 | ○ | - |
| | 파스쿠찌 | 부산서면점 | 23 | ○ | - |
| | 크리스피크림도넛 | 서면롯데시네마점 | 66 | ○ | - |
| | | 서면점 | 90 | - | ○ |
| | 나뚜루 | 부산롯데점 | 18 | ○ | - |
| 롯데식당가점 | | 33 | - | ○ | |
| 합 계 | | | | 15(53.6%) | 13(46.4%) |

II. 1회용컵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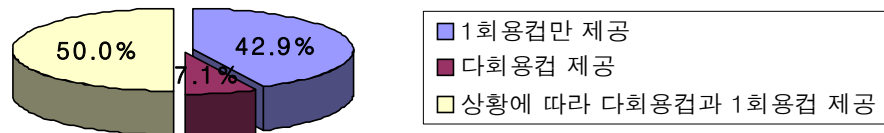
1.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형태를 살펴보면 커피류와 같은 따뜻한 음료와 탄산음료, 주스·스무디류의 찬 음료를 판매할 경우 1회용컵만 제공하는지 다회용컵에 제공하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제공할 경우를 모두 합하여 조사한 결과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이 24개 매장(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24개 매장(42.9%), 다회용컵에 제공하는 매장은 4개 매장(7.1%)로 1회용컵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24 | 42.9% |
| 다회용컵 제공 | 4 | 7.1%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28 | 50.0% |
| 합 계 | 56 | 100% |



<그림 III->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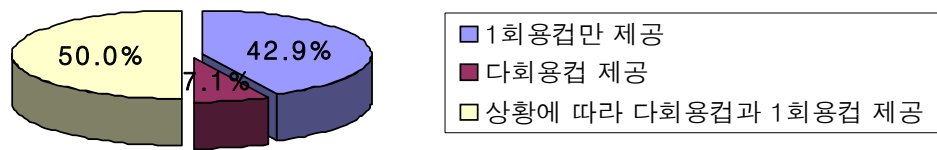
따뜻한 음료 제공시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총 28

개 매장 중 14개 매장(50.0%)로 나타났으며,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이 12개 (42.9%)로 나타나 1회용컵만 사용하는 매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패스트푸드의 경우 버거킹 1개 매장(부산태화점), 테이크아웃의 경우 엔제리너스커피 1개 매장(롯데부산식당가점) 2개 매장으로 나타났다.

<표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12 | 42.9% |
| 다회용컵 제공 | 2 | 7.1%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14 | 50.0% |
| 합 계 | 2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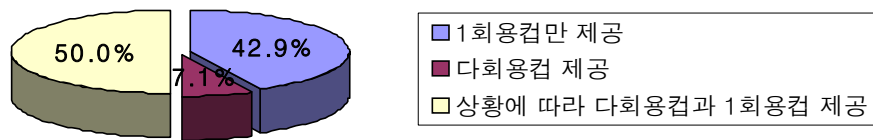
<그림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찬 음료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1회용컵의 형태는 따뜻한 음료를 판매할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총 28개 매장 중 14개 매장(50.0%)으로 나타났고,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이 12개 매장 (42.9%), 다회용컵만을 제공하는 매장이 2개 매장(7.1%)으로 나타나 1회용컵만 사용하는 매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따뜻한 음료 판매 매장과 동일하게 나타나, 패스트 푸드의 경우 버거킹 1개 매장(부산태화점), 테이크아웃의 경우 엔제리너스커피 1개 매장(롯데부산식당가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찬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12 | 42.9% |
| 다회용컵 제공 | 2 | 7.1%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14 | 50.0% |
| 합 계 | 28 | 100% |



<그림 III-> 찬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가. 패스트푸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실태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판매할 경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14개 매장(63.6%)으로 나타나 1회용컵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패스트푸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14 | 63.6% |
| 다회용컵 제공 | 2 | 9.1%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6 | 27.3% |
| 합 계 | 22 | 100% |



<그림 III-> 패스트푸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판매할 때 총 5개 패스트푸드 업체 중 롯데리아와 KFC는 모두 1회용컵만 사용하고 있으며, 버거킹은 1회용컵만 사용하는 매장(1개 매장)과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1개 매장)으로 구분되었다. 맥도날드는 1회용컵만을 사용하는 매장(1개 매장),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2개 매장)으로 조사되었고, 파파이스는 1회용컵만을 사용하는 매장(1개 매장)과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1개 매장)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표 III->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 형태 | 업체명 | 1회용컵만 사용 | 다회용컵 제공 | 상황에 따라 다름 | 합계 |
|-----------|------|-----------|----------|-----------|----------|
| 패스트 푸드 | 롯데리아 | 4(100%) | - | - | 4(100%) |
| | 버거킹 | 2(50.0%) | 2(50.0%) | - | 4(100%) |
| | KFC | 4(100%) | - | - | 4(100%) |
| | 맥도날드 | 2(33.3%) | - | 4(66.7%) | 6(100%) |
| | 파파이스 | 2(50.0%) | - | 2(50.0%) | 4(100%) |
| 합계 | | 14(63.6%) | 2(9.1%) | 6(27.3%) | 22(100%) |

패스트푸드 매장 중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때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7곳(63.6%)으로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1개 매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3개 매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패스트푸드의 경우 롯데리아 2개 매장(롯데부산시네마점, 구서점), 버거킹

1개 매장(부산현대점), KFC 2개 매장(부산지오점, 부산대점), 맥도날드 1개 매장(월드컵점), 파파이스(롯데마트금정점)에서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7 | 63.6% |
| 다회용컵 제공 | 1 | 9.1%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3 | 27.3% |
| 합 계 | 11 | 100% |



<그림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롯데리아 롯데부산시네마점과 구서점, KFC 부산지오점과 부산대점은 모두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고, 버거킹의 경우 2개 매장 중 부산현대점은 1회용컵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태화점에서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맥도날드는 3개 매장 중 월드컵점에서는 1회용컵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매장인 동보점과 서면동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파이스는 2개 매장 중 롯데마트금정점에서는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정이마트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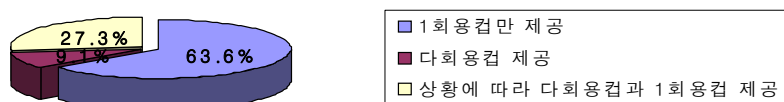
| 형태 | 업체명 | 지점명 | 1회용컵만 제공 | 다회용컵 제공 | 상황에 따라 다름 |
|--------|------|----------|----------|---------|-----------|
| 패스트푸드 | 롯데리아 | 롯데부산시네마점 | ○ | - | - |
| | | 구서점 | ○ | - | - |
| | 버거킹 | 부산현대점 | ○ | - | - |
| | | 부산태화점 | - | ○ | - |
| | KFC | 부산지오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맥도날드 | 월드컵점 | ○ | - | - |
| | | 동보점 | - | - | ○ |
| | | 서면동점 | - | - | ○ |
| | 파파이스 | 롯데마트금정점 | ○ | - | - |
| 금정이마트점 | | - | - | ○ | |
| 합 계 | | | 7(63.6%) | 1(9.1%) | 3(27.3%) |

패스트푸드 매장을 대상으로 찬 음료를 제공할 때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7개(63.6%)로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1개 매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3개 매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찬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7 | 63.6% |
| 다회용컵 제공 | 1 | 9.1%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3 | 27.3% |
| 합 계 | 11 | 100% |



<그림 III -> 찬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찬 음료를 제공할 경우 롯데리아 롯데부산시네마점과 구서점, KFC 부산지오점과 부산대점은 모두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버거킹의 경우 2개 매장 중 부산현대점은 1회용컵만 제공하는 반면, 부산태화점에서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맥도날드는 3개 매장 중 월드컵점 1개 매장에서는 1회용컵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매장인 동보점과 서면동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파이스는 2개 매장 중 롯데마트금정점에서는 1회용컵만을 사용, 금정이마트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찬 음료 제공시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 형태 | 업체명 | 지점명 | 1회용컵만 제공 | 다회용컵 제공 | 상황에 따라 다름 |
|--------|------|----------|-------------|------------|--------------|
| 패스트푸드 | 롯데리아 | 롯데부산시네마점 | ○ | - | - |
| | | 구서점 | ○ | - | - |
| | 버거킹 | 부산현대점 | ○ | - | - |
| | | 부산태화점 | - | ○ | - |
| | KFC | 부산지오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맥도날드 | 월드컵점 | ○ | - | - |
| | | 동보점 | - | - | ○ |
| | | 서면동점 | - | - | ○ |
| | 파파이스 | 롯데마트금정점 | ○ | - | - |
| 금정이마트점 | | - | - | ○ | |
| 합 계 | | | 7(63.6%) | 1(9.1%) | 3(27.3%) |

나. 테이크아웃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실태

테이크아웃점 매장 내에서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판매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이 22개 매장(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10개 매장(29.4%)로 패스트푸드 매장의 1회용컵 사용률(63.6%)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테이크아웃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10 | 29.4% |
| 다회용컵 제공 | 2 | 5.9%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22 | 64.7% |
| 합 계 | 34 | 100% |



〈그림 III -〉 테이크아웃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판매할 경우 총 9개 테이크아웃 업체 중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조사대상 매장은 모두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나뚜루 매장은 모두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제리너스커피의 경우 다회용컵 제공 매장과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각각 50.0%로 나타났고, 크리스피크림도넛의 경우 1회용컵만을 사용하는 매장과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표 III -〉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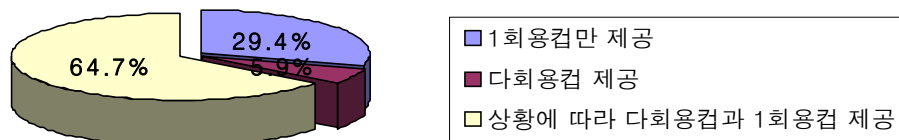
| 형태 | 업체명 | 1회용컵만 사용 | 다회용컵 제공 | 상황에 따라 다름 | 합계 |
|-------|---------|----------|----------|-----------|---------|
| 테이크아웃 | 스타벅스 | | | 4(100%) | 4(100%) |
| | 할리스커피 | | | 4(100%) | 4(100%) |
| | 엔제리너스커피 | | 2(50.0%) | 2(50.0%) | 4(100%) |
| | 던킨도너츠 | 2(100%) | | | 2(100%) |
| | 배스킨라빈스 | 6(100%) | | | 6(100%) |

| | | | | |
|----------|-----------|---------|-----------|----------|
| 투썸플레이스 | | | 4(100%) | 4(100%) |
| 파스쿠찌 | | | 2(100%) | 2(100%) |
| 크리스피크림도넛 | 2(50.0%) | | 2(50.0%) | 4(100%) |
| 나뚜루 | | | 4(100%) | 4(100%) |
| 합 계 | 10(29.4%) | 2(5.9%) | 22(64.7%) | 34(100%) |

테이크아웃점 매장 중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 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11개 매장(64.7%)으로 나타나 1회용컵만을 제공하는 매장 5개 매장(29.4%)과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1개 매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5 | 29.4% |
| 다회용컵 제공 | 1 | 5.9%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11 | 64.7% |
| 합 계 | 17 | 100% |



<그림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던킨도너츠 효원굿플러스점, 베스킨라빈스 금정이마트점과 부산롯데 2호점 그리고 부산대점은 모두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범일동역점과 부산대점, 할리스커피 부산서면점과 부산대점, 투썸플레이스 부산서면점과 부산대점, 파스쿠찌 부산서면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업체가 아닌 나뚜루 부산롯데점과 롯데식당가점은 모두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제리너스커피의 경우 2개 매장 중 롯데부산식당가점은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롯데부산시네마점은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리스피크림도넛의 경우 2개 매장 중 서면롯데시네마점은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서면점은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따뜻한 음료 제공시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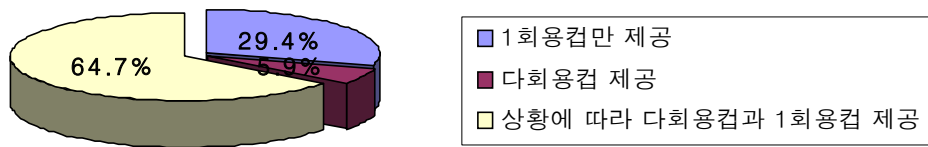
| 형태 | 업체명 | 지점명 | 1회용컵만 제공 | 다회용컵 제공 | 상황에 따라 다름 |
|--------|----------|----------|-------------|------------|--------------|
| 테이크아웃 | 스타벅스 | 범일동역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할리스커피 | 부산서면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엔제리너스커피 | 롯데부산식당가점 | - | ○ | - |
| | | 롯데부산시네마점 | - | - | ○ |
| | 던킨도너츠 | 효원굿플러스점 | ○ | - | - |
| | 배스킨라빈스 | 금정이마트점 | ○ | - | - |
| | | 부산롯데2호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투썸플레이스 | 부산서면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파스쿠찌 | 부산서면점 | - | - | ○ |
| | 크리스피크림도넛 | 서면롯데시네마점 | ○ | - | - |
| | | 서면점 | - | - | ○ |
| | 나뚜루 | 부산롯데점 | - | - | ○ |
| 롯데식당가점 | | - | - | ○ | |
| 합 계 | | | 5 | 1 | 11 |

테이크아웃점 매장 중 찬 음료를 제공할 경우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의 형태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테이크아웃점 매장 중 찬 음료를 제공할 때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11개 매장(64.7%)으로 나타나 1회용컵만을 제공하는 매장은 5개 매장(29.4%)과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1개 매장(5.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찬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 사용하는 컵의 종류 | 매장수 | 비율(%) |
|----------------------|-----|-------|
| 1회용컵만 제공 | 5 | 29.4% |
| 다회용컵 제공 | 1 | 5.9% |
|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 | 11 | 64.7% |
| 합 계 | 17 | 100% |



<그림 III-> 찬 음료 제공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

테이크아웃점 매장 중에서 찬 음료를 제공할 때 매장별로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찬 음료를 제공할 경우 던킨도너츠 효원굿플러스점, 배스킨라빈스 금정이마트점과 부산롯데 2호점, 부산대점은 모두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범일동역점과 부산대점, 할리스커피 부산서면점과 부산대점, 투썸플레이스 부산서면점과 부산대점, 파스쿠찌 부산서면점, 나뚜루 부산롯데점과 롯데식당가점은 모두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제리너스커피의 경우 2개 매장 중 롯데부산식당가점은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반면, 롯데부산시네마점은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피크림도넛의 경우 2개 매장 중 서면롯데시네마점은 1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서면점은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찬 음료 제공시 매장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 형태 | 업체명 | 지점명 | 1회용컵만 제공 | 다회용컵 제공 | 상황에 따라 다름 |
|-------|----------|----------|-------------|------------|--------------|
| 테이크아웃 | 스타벅스 | 범일동역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할리스커피 | 부산서면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엔제리너스커피 | 롯데부산식당가점 | - | ○ | - |
| | | 롯데부산시네마점 | - | - | ○ |
| | 던킨도너츠 | 효원굿플러스점 | ○ | - | - |
| | 배스킨라빈스 | 금정이마트점 | ○ | - | - |
| | | 부산롯데2호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투썸플레이스 | 부산서면점 | - | - | ○ |
| | | 부산대점 | - | - | ○ |
| | 파스쿠찌 | 부산서면점 | - | - | ○ |
| | 크리스피크림도넛 | 서면롯데시네마점 | ○ | - | - |
| | | 서면점 | - | - | ○ |
| | 나뚜루 | 부산롯데점 | - | - | ○ |
| | | 롯데식당가점 | - | - | ○ |
| 합 계 | | | 5 | 1 | 11 |

2. 매장 내 1회용컵 회수실태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컵의 회수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각 매장을 방문하여 약 20~30분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음료 중 1회용컵에 담겨서 판매되는 음료의 개수에서 밖으로 가져 나가는 음료의 개수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매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컵의 개수를 추정하고, 이를 부산지역에서 1회용컵을 수거하는 업체(동신제지)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컵의 개수를 추정해 보았다.

매장 내에서 일주일간 버려지는 1회용컵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20~30분 동안 판매되는 1회용컵의 양에서 매장 밖으로 가져 나가는 1회용컵의 개수를 제외하고, 여기에 밖으로 가져 나갔다가 다시 가져온 1회용컵의 양을 더한 후 조사 시간으로 나눈 후 이를 일주일간의 무게로 환산하였다. 여기서 종이컵 무게는 일반적인 종이컵 무게 평균인 5g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조사 시간 동안 방문객의 수가 적어 1회용컵의 사용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장은 제외하였다.

가. 패스트푸드 매장 내 1회용컵 회수실태

1)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의 추정 발생량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의 회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간 동안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거의 없었던 롯데리아 구서점, KFC 부산지오점, 파파이스 롯데마트 금정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1주일 동안 사용하는 1회용컵의 무게를 추정한 결과 최소 1.68kg에서 최대 85.68kg으로 추정된다. 최소로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매장은 버거킹 부산태화점이고, 최대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매장은 롯데리아 부산시네마점이다.

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컵의 종류와도 관계가 있다. 롯데리아 롯데부산시네마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이고, 버거킹 부산태화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비교적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의 양이 적은 파파이스 금정마트점도 1회용컵과 다회용컵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1회용컵만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비해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매장별 매장 내에서 1주일 동안 사용하는 1회용컵의 무게 추정

| 업체명 | 조사 시간 (분) | 판매되는 1회용컵 개수 | 매장 밖으로 가져나가는 1회용컵 개수 |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 개수 | 밖으로 가져 나갔다가 가져온 컵의 개수 | 매장 내 사용 일주일 1회용컵 사용무게 (kg) |
|---------------|-----------|--------------|----------------------|---------------------|-----------------------|----------------------------|
| 롯데리아 롯데부산시네마점 | 30 | 53 | 2 | 51 | - | 85.68 |
| 버거킹 부산현대점 | 30 | 14 | 6 | 8 | - | 13.44 |
| 버거킹 부산태화점 | 30 | 7 | 6 | 1 | - | 1.68 |
| KFC 부산대점 | 20 | 16 | 2 | 14 | - | 23.52 |
| 맥도날드 월드컵점 | 30 | 31 | 15 | 16 | - | 26.88 |
| 맥도날드 동보점 | 30 | 38 | 18 | 20 | - | 33.6 |
| 맥도날드 서면동점 | 30 | 26 | 17 | 9 | - | 15.12 |
| 파파이스 금정마트점 | 30 | 7 | 2 | 5 | - | 8.4 |

2) 수거업체에서 1주일간 수거한 1회용컵 무게와의 비교

조사대상 패스트푸드 매장을 순회하며 발생한 1회용컵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수거한 양을 조사하여 매장에서 발생한 1회용컵이 주로 수거업체로 유입되는지 혹은 종량제 봉투로 투입되어 버려지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업체는 1주일에 1번, 수거 계약 업체를 순회하며 별도로 분리배출한 1회용컵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말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2011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패스트푸드는 주로 수거업체에서 1주일에 1번 정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수량이 많지 않아 1달에 1번 정도 수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1주일로 데이터를 환산하였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전 매장 내 사용 1회용컵 사용무게 대비 업체 일주일(추정) 수거량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 50.1%로 전반적으로 1회용컵 수거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 무게 대비 수거업체에서 일주일간(추정) 수거한 양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수거가 이루어진 매장은 맥도날드 서면동점으로 99.2%의 높은 수거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파이스 금정이마트점이 71.4%, KFC 부산대점이 55.3%로 높은 수거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맥도날드 월드컵점의 경우 22.3%로 가장 낮은 수거량을 보이고 있으며, 맥도날드 동보점이 29.8% 그리고 롯데리아 롯데부산시네마점이 35.0%로 그 다음 낮은 순위의 수거량을 보이고 있다.

버거킹 부산태화점의 경우 대부분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 회수되는 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수거업체에서 일주일간 수거한 1회용컵 무게와의 비교

| 업체명 | 업체에서 실제 회수된 양(kg) | 업체 일주일 (추정)수거량 (kg) | 매장 내 사용 일주일 1회용컵 사용무게(kg) |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1회용컵 추정무게(kg) | 업체일주일 (추정)수거량 비율(%) |
|------------------|-------------------|---------------------|---------------------------|--------------------------|---------------------|
| 롯데리아 롯데부산시네마점 | 30 | 30 | 85.68 | 55.68 | 35.0% |
| 버거킹 부산현대점 | 5 | 5 | 13.44 | 8.44 | 37.2% |
| 버거킹 부산태화점 | - | - | 1.68 | 1.68 | - |
| KFC 부산대점 | 13 | 13 | 23.52 | 10.52 | 55.3% |
| 맥도날드 월드컵점 | 6 | 6 | 26.88 | 20.88 | 22.3% |
| 맥도날드 동보점 | 10 | 10 | 33.6 | 23.6 | 29.8% |
| 맥도날드 서면동점 | 15 | 15 | 15.12 | 0.12 | 99.2% |
| 파파이스 금정이마트점 | 6 | 6 | 8.4 | 2.4 | 71.4% |
| 합 계 | 117 | 117 | 233.6 | 116.6 | 50.1% |

나. 테이크아웃점 매장 내 1회용컵 회수실태

1)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의 추정 발생량

테이크아웃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의 회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간 동안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거의 없었던 할리스커피 부산서면점, 나뚜루 롯데식당가 점을 제외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테이크아웃점 매장 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1회용컵의 사용 무게는 최소 3.36kg에서 최대 65.52kg으로 조사되었다. 최소로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매장은 크리스피크림도넛 서면롯데시네마점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미체결 업체 매장인 나뚜루 부산롯데점으로 조사되었고, 최대로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매장은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시네마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매장별 매장 내에서 1주일 동안 사용하는 1회용컵의 무게 추정

| 업체명 | 조사 시간 (분) | 판매되는 1회용컵 개수 | 매장 밖으로 가져나가는 1회용컵 개수 |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 개수 | 밖으로 가져 나갔다가 가져온 컵의 개수 | 매장 내 사용 일주일 1회용컵 사용무게(kg) |
|---------------|-----------|--------------|----------------------|---------------------|-----------------------|---------------------------|
| 스타벅스 범일동역점 | 30 | 32 | 14 | 18 | 1 | 15.12 |
| 스타벅스부산대점 | 25 | 7 | 2 | 5 | - | 10.08 |

| | | | | | | |
|----------------------|----|----|---|----|---|-------|
| 할리스커피 부산대점 | 30 | 16 | 6 | 10 | - | 16.8 |
|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식당가점 | 20 | 31 | 5 | 26 | - | 65.52 |
|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시네마점 | 30 | 36 | 5 | 31 | - | 52.08 |
| 던킨도너츠 효원굿플러스점 | 30 | 23 | 4 | 19 | - | 31.92 |
| 맥스킨라빈스 부산롯데 2호점 | 30 | 10 | 1 | 9 | - | 15.12 |
| 맥스킨라빈스 부산대점 | 40 | 9 | - | 9 | - | 11.34 |
| 투썸플레이스 부산서면점 | 20 | 13 | - | 13 | - | 32.76 |
| 투썸플레이스 부산대점 | 30 | 12 | - | 12 | - | 20.16 |
| 파스쿠찌 부산서면점 | 30 | 10 | - | 10 | - | 16.8 |
| 크리스피크림도넛 서면롯데시네마점 | 30 | 2 | - | 2 | - | 3.36 |
| 크리스피크림도넛 서면점 | 30 | 11 | 5 | 6 | - | 10.08 |
| 나무루 부산롯데점 | 30 | 5 | 3 | 2 | - | 3.36 |

2)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1회용컵 무게와의 비교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주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기보다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회수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1회용컵의 양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수거 업체를 통해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업체에 따라 수거되는 양이 1주일간 최대 40kg이 발생하는 매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테이크아웃점 전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 무게 대비 업체 일주일(추정) 수거량 비율을 보면 38.1%로 전반적으로 1회용컵 수거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 무게 대비 수거업체에서 일주일간(추정) 가장 많이 수거한 매장은 크리스피크림도넛 서면롯데시네마점으로 89.3%의 높은 수거량을 보이고 있으며, 스타벅스 부산대점이 79.4%,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식당가점 61.1%

순으로 조사되었다.

1회용컵이 수거되고 있는 업체만을 기준으로 할 때 투썸플레이스 부산대점의 경우 6.2%로 가장 낮은 수거량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던킨도너츠 효원굿플러스점이 18.8%,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시네마점이 26.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테이크아웃점에서는 발생한 1회용컵의 수거 및 회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 부산롯데 2호점의 경우 회수되는 컵이 없어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 않아 수거되는 1회용컵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투썸플레이스 부산서면점은 1회용컵을 분리배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1회용컵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체의 매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달리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의 발생량도 있는 만큼 회수되는 양이 적더라도 별도의 회수 시스템을 갖추고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이 있지만 별도의 회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발생한 1회용컵을 하나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곳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배스킨라빈스 부산롯데 2호점의 경우에도 회수되는 컵이 없다고 별도의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매장 내에서는 실제로 1회용품이 발생¹⁾하고 있어 이를 회수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비대상업체인 나무루 부산롯데점은 주로 테이크아웃 제품이어서 회수되는 컵의 양이 한 달에 1~2개 정도로 거의 없어 수거량이 거의 없다고 수거업체에서 확인하였다.

파스쿠찌 부산서면점은 조사대상 수거업체가 거래하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1회용컵 수거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의 수거량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부산

1) 2009년도에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조사한 결과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종량제 봉투 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1회용컵 및 1회용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거하는 매장도 있는 만큼 별도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에 파스쿠찌 매장이 부산서면점 1개 매장밖에 없기 때문에 1주일간 발생하는 1회용컵의 무게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표 III ->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1회용컵 무게와의 비교

| 업체명 | 업체에서 실제 회수된 양(kg) | 업체 일주일 (추정)수거량 (kg) | 매장 내 사용 일주일 1회용컵 사용무게(kg) |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1회용컵 추정무게(kg) | 업체일주일 (추정)수거량 비율(%) |
|-------------------|-------------------|---------------------|---------------------------|--------------------------|---------------------|
| 스타벅스 범일동역점 | 8 | 8 | 15.12 | 7.12 | 52.9% |
| 스타벅스부산대점 | 32 | 8 | 10.08 | 2.08 | 79.4% |
| 할리스커피 부산대점 | 6 | 6 | 16.8 | 10.8 | 35.7% |
|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식당가점 | 40 | 40 | 65.52 | 25.52 | 61.1% |
| 엔제리너스 롯데부산시네마점 | 14 | 14 | 52.08 | 38.08 | 26.9% |
| 던킨도너츠 효원굿플러스점 | 6 | 6 | 31.92 | 25.92 | 18.8% |
| 맥스킨라빈스 부산롯데 2호점 | - | - | 15.12 | 15.12 | - |
| 맥스킨라빈스 부산대점 | 5 | 5.7 | 11.34 | 5.64 | 50.3% |
| 투썸플레이스 부산서면점 | - | - | 32.76 | 32.76 | - |
| 투썸플레이스 부산대점 | 5 | 1.25 | 20.16 | 18.91 | 6.2% |
| 파스쿠찌 부산서면점 | - | - | 16.8 | 16.8 | - |
| 크리스피크림도넛 서면롯데시네마점 | 3 | 3 | 3.36 | 0.36 | 89.3% |
| 크리스피크림도넛 서면점 | 5 | 5 | 10.08 | 5.08 | 49.6% |
| 나뚜루 부산롯데점 | - | - | 3.36 | 3.36 | - |
| 합 계 | 178 | 120.6 | 316.3 | 195.7 | 38.1% |

Ⅲ.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준수여부

1.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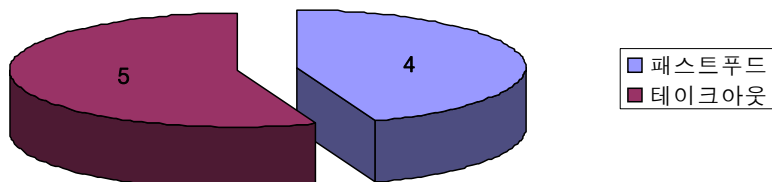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내용에 의하면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총 28개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9개 매장으로 3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형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개 매장(14.3%)에 해당하며 테이크아웃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5개 매장(17.9%)으로 조사되었다.

인센티브 제공은 업체가 동일하더라도 매장에 따라서 제공여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의 인센티브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 다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 형태별 | 인센티브 제공 | | 인센티브 미제공 | | 합 계 |
|-------|---------|-------|----------|-------|-----------|
| | 매장수 | 비율(%) | 매장수 | 비율(%) | |
| 패스트푸드 | 4 | 14.3% | 7 | 25.0% | 11(39.3%) |
| 테이크아웃 | 5 | 17.9% | 12 | 42.9% | 17(60.7%) |
| 합 계 | 9 | 32.1% | 19 | 67.9% | 28(100%) |



〈그림 Ⅲ-〉 다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 제공 매장수

가. 패스트푸드점 대상 다회용컵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 제공 매장

총 조사대상 11개 패스트푸드 매장 중 4개 매장(36.4%)에서만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하는 매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패스트푸드 업체 중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모든 조사 매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체는 버거킹 2곳이 유일하게 나타났다. 버거킹 부산현대점과 부산태화점 모두 개인컵을 사용할 때 무료음료 1잔을 제공하거나 재활용 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롯데리아는 2개 매장 중 1개 매장, 롯데부산시네마점서만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환경지킴이 스탬프를 10회 받았을 경우 무료음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고, KFC도 2개 매장 중 1곳, 부산지오점에서만 개인컵을 사용했을 경우 무료 음료 1잔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패스트푸드 업체 중 맥도날드 3개 매장 모두와 파파이스 2개 매장 모두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패스트푸드의 경우 동일한 업체라 하더라도 매장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패스트푸드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 여부

| 형태 | 업체명 |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미제공 | 기타 | 합계 |
|-----------|------|----------|----------|----|----------|
| 패스트 푸드 | 롯데리아 | 1(50.0%) | 1(50.0%) | - | 2(100%) |
| | 버거킹 | 2(100%) | - | - | 2(100%) |
| | KFC | 1(50.0%) | 1(50.0%) | - | 2(100%) |
| | 맥도날드 | - | 3(100%) | - | 3(100%) |
| | 파파이스 | - | 2(100%) | - | 2(100%) |
| 합 계 | | 4(36.4%) | 7(63.6%) | - | 11(100%) |

나. 패스트푸드점 대상 다회용컵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 제공 매장

조사대상 총 17개 테이크아웃 매장 중 5개 매장(29.4%)에서만 1회용컵의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개 테이크아웃점 중 조사 매장 전 곳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체는 엔제리너스커피 2개 매장과 파스쿠찌 1개 매장으로 조사되었다. 엔제리너스커피의 경우 롯데부산식당가점과 롯데부산시네마점 2개 매장 모두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왔을 때 그린카드에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스쿠찌의 경우 조사 대상 1개 매장인 부산서면점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을 할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할리스커피는 2개 매장 중 1개 매장, 부산서면점에서 개인컵을 가져왔을 때 10%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크리스피크림도넛도 2개 매장 중 1개 매장, 서면롯데시네마점에서만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500원 할인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2개 매장 중 1개 매장, 부산서면점에서는 보온병이나 개인컵을 가져왔을 때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개 테이크아웃점 중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3개 업체(스타벅스 2개 매장, 던킨도너츠 1개 매장, 배스킨라빈스 3개 매장)와 미체결 1개 업체(나뚜루 2개 매장)에서는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테이크아웃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 여부

| 형태 | 업체명 |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미제공 | 합계 |
|-------|----------|----------|-----------|----------|
| 테이크아웃 | 스타벅스 | | 2(100%) | 2(100%) |
| | 할리스커피 | 1(50.0%) | 1(50.0%) | 2(100%) |
| | 엔제리너스커피 | 2(100%) | | 2(100%) |
| | 던킨도너츠 | | 1(100%) | 1(100%) |
| | 배스킨라빈스 | | 3(100%) | 3(100%) |
| | 투썸플레이스 | | 2(10.0%) | 2(100%) |
| | 파스쿠찌 | 1(100%) | | 1(100%) |
| | 크리스피크림도넛 | 1(50.0%) | 1(50.0%) | 2(100%) |
| | 나뚜루 | | 2(100%) | 2(100%) |
| 합계 | | 5(29.4%) | 11(64.7%) | 17(100%) |

2.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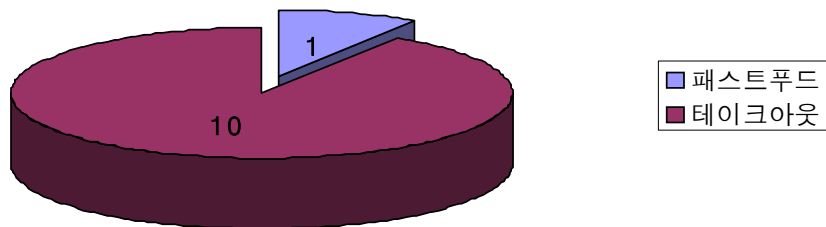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내용에 의하면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밖으로 들고 나가는 자사 상품의 1회용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총 28개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1개 매장으로 3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형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중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개 매장(3.6%)으로 조사되었지만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매장은 10개 매장(35.7%)으로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여부

| 형태별 | 인센티브 제공 | | 인센티브 미제공 | | 합 계 |
|-------|---------|-------|----------|-------|-----------|
| | 매장수 | 비율(%) | 매장수 | 비율(%) | |
| 패스트푸드 | 1 | 3.6% | 10 | 35.7% | 11(39.3%) |
| 테이크아웃 | 10 | 35.7% | 7 | 25.0% | 17(60.7%) |
| 합 계 | 11 | 39.3% | 17 | 60.7% | 28(100%) |



〈그림 III-〉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매장수

그러나 동일한 업체라 하더라도 매장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매장과 아닌

매장이 구분되는 경우와 제공되는 인센티브 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파파이스 1개 매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1개 매장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할리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은 매장마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패스트푸드점 대상 자사 1회용컵 되가져왔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총 11개 패스트푸드 매장 중 1개 매장(9.1%)에서만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센티브 시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패스트푸드 업체 중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체 매장은 파파이스 2개 매장 중 1개 매장인 롯데마트 금정점에서만 1회용컵 1개를 회수했을 때 100원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4개 업체, 롯데리아 2곳, 버거킹 2곳, KFC 2곳 그리고 맥도날드 3곳은 별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패스트푸드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여부

| 형태 | 업체명 |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미제공 | 합계 |
|-----------|------|----------|-----------|----------|
| 패스트 푸드 | 롯데리아 | - | 2(100%) | 2(100%) |
| | 버거킹 | - | 2(100%) | 2(100%) |
| | KFC | - | 2(100%) | 2(100%) |
| | 맥도날드 | - | 3(100%) | 3(100%) |
| | 파파이스 | 1(50.0%) | 1(50.0%) | 2(100%) |
| 합 계 | | 1(9.1%) | 10(90.9%) | 11(100%) |

나. 테이크아웃점 대상 자사 1회용컵 되가져왔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총 17개 테이크아웃 매장 중 10개 매장(58.8%)에서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패스트푸드 매장에 비해 인센티브 시행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테이크아웃 업체 중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조사 매장 전 곳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체는 5개 업체,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그리고 크리스피크림도넛으로 조사되었다.

할리스커피의 경우 부산서면점은 1회용컵을 10개 회수할 때 50원 할인 혜택, 부산대점은 1회용컵을 10개 회수할 경우 300원 할인 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제리너스커피의 경우 롯데부산식당가점과 롯데부산시네마점 모두 1회용컵을 1개 회수할 경우 그린카드에 날인해 주고, 10개의 컵을 회수한 후 11회째가 되었을 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던킨도너츠의 경우 조사대상 1개 매장인 효원굿플러스점에서 1회용컵을 1개 가져왔을 경우 10원씩 환불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스쿠찌의 경우 조사대상 1개 매장인 부산서면점에서 1회용컵 10개를 회수했을 때 300원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크리스피크림도넛의 경우 서면롯데시네마점은 1회용컵 1개당 스탬프 1개씩 찍어주고 10개를 채우면 도넛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면점은 컵 1개를 회수했을 때 빵 1개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타벅스는 2개 매장 중 1곳, 부산대점에서만 1회용컵 10개 회수시 300원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스킨라빈스는 3개 매장 중 1곳, 금정이마트점에서만 1회용컵 5개 회수 시 50원을 할인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업체인 투썸플레이스 2개 매장과 자발적 협약 비대상업체인 나뚜루 2개 매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밖으로 가져간 자사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테이크아웃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여부

| 형태 | 업체명 |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미제공 | 합계 |
|-----------|----------|-----------|----------|----------|
| 테이크 아웃 | 스타벅스 | 1(50.0%) | 1(50.0%) | 2(100%) |
| | 할리스커피 | 2(100%) | - | 2(100%) |
| | 엔제리너스커피 | 2(100%) | - | 2(100%) |
| | 던킨도너츠 | 1(100%) | - | 1(100%) |
| | 맥스킨라빈스 | 1(33.3%) | 2(66.7%) | 3(100%) |
| | 투썸플레이스 | - | 2(100%) | 2(100%) |
| | 파스쿠찌 | 1(100%) | - | 1(100%) |
| | 크리스피크림도넛 | 2(100%) | - | 2(100%) |
| | 나뚜루 | - | 2(100%) | 2(100%) |
| 합 계 | | 10(58.8%) | 7(41.2%) | 17(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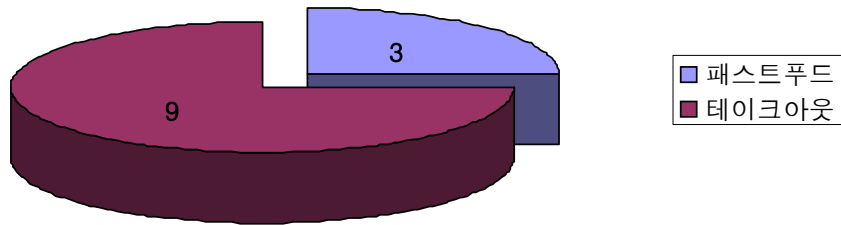
3. 타사제품의 1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 여부

협약내용에 따르면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타사 상품의 1회용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있으나 약 57%의 매장에서는 회수하고 있지 않고, 회수하는 매장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매장은 총 28개 매장 중 12개 매장(42.9%)로 조사되었으며, 업체 형태별로는 테이크아웃 매장이 9곳(32.1%)으로 패스트푸드 매장 3곳(10.7%)에 비해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 여부

| 형태별 | 회수 | | 미회수 | | 합 계 |
|-------|-----|-------|-----|-------|-----------|
| | 매장수 | 비율(%) | 매장수 | 비율(%) | |
| 패스트푸드 | 3 | 10.7% | 8 | 28.6% | 11(39.3%) |
| 테이크아웃 | 9 | 32.1% | 8 | 28.6% | 17(60.7%) |
| 합 계 | 12 | 42.9% | 16 | 57.1% | 28(100%) |



〈그림 III -〉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 매장수

가. 패스트푸드점의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 여부

조사대상 총 11개 패스트푸드 매장 중 3개 매장(27.3%)에서만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고 있어 패스트푸드 매장의 경우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패스트푸드 업체 중 조사 매장 전 곳에서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업체는 롯데리아는 2개 매장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맥도날드는 3개 매장 중 1개 매장, 서면동점에서만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개 업체인 버거킹 2개 매장, KFC 1개 매장, 파파이스 2개 매장에서는 조사 대상 전 매장에서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패스트푸드 업체별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 여부

| 형태 | 업체명 | 회수 | 미회수 | 합계 |
|-----------|------|----------|----------|----------|
| 패스트 푸드 | 롯데리아 | 2(100%) | - | 2(100%) |
| | 버거킹 | - | 2(100%) | 2(100%) |
| | KFC | - | 2(100%) | 2(100%) |
| | 맥도날드 | 1(33.3%) | 2(66.7%) | 3(100%) |
| | 파파이스 | - | 2(100%) | 2(100%) |
| 합 계 | | 3(27.3%) | 8(72.7%) | 11(100%) |

나. 테이크아웃점의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 여부

총 17개 테이크아웃 매장 중 9개 매장(52.9%)에서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고 있어 패스트푸드 매장보다 비교적 회수율이 높으나 전체 조사대상 매장과의 비율로 살펴볼 때에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9개 테이크아웃 업체 중 조사 매장 전 곳에서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업체는 5개 업체로, 스타벅스 2개 매장, 할리스커피 2개 매장, 엔제리너스커피 2개 매장, 던킨도너츠 1개 매장, 그리고 크리스피크림도넛 2개 매장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4개 업체인 배스킨라빈스 3개 매장, 투썸플레이스 2개 매장, 파스쿠찌 1개 매장, 1회용컵 자발적 협약 미체결 업체인 나무루 2개 매장은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테이크아웃 업체별 타사제품 1회용컵 회수 여부

| 형태 | 업체명 | 회수 | 미회수 | 합계 |
|-----------|----------|----------|----------|----------|
| 테이크 아웃 | 스타벅스 | 2(100%) | - | 2(100%) |
| | 할리스커피 | 2(100%) | - | 2(100%) |
| | 엔제리너스커피 | 2(100%) | - | 2(100%) |
| | 던킨도너츠 | 1(100%) | - | 1(100%) |
| | 배스킨라빈스 | - | 3(100%) | 3(100%) |
| | 투썸플레이스 | - | 2(100%) | 2(100%) |
| | 파스쿠찌 | - | 1(100%) | 1(100%) |
| | 크리스피크림도넛 | 2(100%) | - | 2(100%) |
| | 나무루 | - | 2(100%) | 2(100%) |
| 합 계 | | 9(52.9%) | 8(47.1%) | 17(100%) |

제4장 · 결 론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 총 14개 업체 28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컵 수거 및 회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8개 매장 중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15개(53.6%) 매장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13개(46.4%) 매장보다 2개 매장이 더 많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 결과 패스트푸드 업종 매장에서 3곳(10.7%)에서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어 테이크아웃 업종 12곳(42.9%)보다 현저히 적은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은 패스트푸드 업종(25.0%)과 테이크아웃 업종(21.4%) 모두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어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형태는 커피류의 따뜻한 음료와 탄산음료, 주스, 스무디류의 찬 음료 판매 시 1회용컵만 제공, 다회용컵 제공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 제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 제공시 모두 상황에 따라 다회용컵과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이 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42.9%로 1회용컵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 부산태화점, 테이크아웃 업체인 엔제리 너스커피 롯데부산식당가점 2개 매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회용컵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푸드 매장 내 따뜻한 음료와 찬 음료를 판매할 때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이 63.6%로 조사되어 1회용컵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매장의 경우 1회용컵만 제공하는 매장은 29.4%로 패스트푸드 매장의 1회용컵 사용률(63.6%)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조사대상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의 사용무게와 수거 업체에서 일주일 동안 수거량을 추정한 비율과 비교하여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의 양을 비교한 결과 약 50.1%로 전반적으로 1회용컵 수거량이 많지 않았으며, 테이크아웃 점의 경우에도 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 사용무게 대비 업체 일주일(추정) 수거량 비율은 38.1%로 1회용컵 수거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다른 쓰레기 같이 버려지는 1회용컵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수 조치가 없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09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실시한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 버려지는 종량제 봉투 성상 조사 결과만 살펴보다라도 1회용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1회용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가장 큰 취지는 1회용품의 사용량이 많은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하기 등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신 1회용컵을 사용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소비자들에게 다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 및 매장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제공여부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인다.

또한 1회용품 자발적 협약내용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협약 내용 중 하나인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총 28개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9개 매장으로 3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형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개 매장(14.3%)에 해당하며 테이크아웃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5개 매장(17.9%)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밖으로 들고 나가는 자사 상품의 1회용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나 총 28개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1개 매장(3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형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개 매장(3.6%) 밖에 없으며 테이크아웃 업체 매장 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10개 매장(35.7%)으로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업체마다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다르고, 동일한 업체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이 구분되고, 인센티브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으

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타사제품 1회용컵을 회수하는 매장은 총 28개 매장 중 12개 매장 42.9%로 조사되었으며, 업체 형태별로는 테이크아웃 매장이 9곳(32.1%)으로 패스트푸드 매장 3곳(10.7%)에 비해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타사제품 1회용컵 또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업체별로 관리하여 협약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